

經濟學碩士 學位論文

한국 중소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An study on Korean small business's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main China : Model building

指導教授 俞日善

2005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張云旌

목 차

ABSTRACT	4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7
제2장 기존문헌연구	9
제3장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14
제1절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14
1. 연도별 추이	14
2. 지역별 분포	18
3. 업종별 분포	20
4. 투자규모별 비중	21
5. 소유지분별 비중	23
6. 청산 및 철수기업 현황	24
제2절 소결	25
제4장 한국 중소기업 대중국 직접투자모형	27
제5장 모형의 경제적 함의	34
제6장 결론	37
<부록>	38
<참고문헌>	39

<표목차>

<표 2-1> 한국의 대중 투자추이.....	15
<표 2-2> 중소기업의 대중투자의 위상.....	16
<표 2-3> 중국의 각국별 외국인 투자비중.....	17
<표 2-4> 대중국 투자지역별 비중.....	19
<표 2-5> 대중국 투자의 업종별 비중.....	21
<표 2-6> 대중국 투자 규모별 비중.....	22
<표 2-7> 대중국 투자지분별 비중.....	24
<표 2-8> 중국투자 중소기업 청산현황.....	25
<표 5-1>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철수건수 및 금액.....	34

<그림 목차>

<그림 4-1> 목표생산량과 실제생산량.....	30
<그림 4-2> 한계거래비용과 청산기업수의 관계.....	31
<그림 4-3> 청산기업수의 결정.....	32
<그림 4-4> 한계거래비용이 하락한 경우 청산기업수의 변화.....	33
<그림 4-5> 한계생산비용, 한계수익이 변화한 경우 청산기업수의 변화.....	38

<ABSTRACT>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o PRC(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been increased drastically since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was recovered in 1992. As of 2003, when it comes to the investment to China in numbers and in amounts, Korea is ranked as one of the 5 leading countries which consists of, so called,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and Japan.

Several 'stylized facts' are found, based upon the related articles and data.

Firstly, most of Korean FDI to China is being made by small business companies which have conducted the small sized investment below a million dollar. Secondly, The FDI concentrates on specific areas such as Shandong Province(山东省)and 3 provinces which is located in North-East area. The vicinity to Korean peninsular and Korean- Chinese contribute to attract this FDI. Thirdly, Korean FDI focuses on producing labor intensive goods which takes advantage of lower wage than Korean one. Fourthly, Korean investor prefers single ownership to partnership. And a few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are also posed as follows. As a whole, the Korean firms earn relatively low yield rate. They have a strong tendency to just utilize the lower wage condition, not considering other factors-information about Chinese market, cultural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Even though FDI increases very rapidly,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bankrupt firms also goes up.

My question is what makes firms bankrupt. It shouldn't be expected to happen if FDI were rationally decided. In order to make an explicit explanation, I build up an analytical model in the premise that every firm makes decisions to maximize its profits. Total cost is usually composed of production cost and transaction cost. A major assumption in this model is that a firm decides its

planned(expected) quantity, which is determined when firms maximize the expected profit, considering only its production cost while it perceives the real transaction cost, beginning to produce goods. Then the real quantity, which is determined when firms maximize its profit after investment, is always underestimated in comparison with the planned quantity. This discrepancy between the planned quantity and the real one leads to excess capacity the investing firm should keep. The firms end up to go bankrupt when the real quantity is zero. So the more firms perceives the transaction cost before investment, the less firms will keep excess capacity and go bankrupt.

This model shows that lack of information about transaction cost on deciding investment causes the Korean small sized companies to go bankrupt. So in order to prevent firms from going bankruptcy, it is suggested that the information about Chinese market should be created by the government or government related institutes and be provided as a public good.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진출시킬 상품, 진출할 시장 그리고 진입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진출시킬 상품이나 진출 시장을 선정한 다음 진입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입방식의 결정에 대한 절대적 패턴은 없고 진출시킬 제품 또는 진출대상 시장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된다.¹

1980 년 후반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열렸다. 중국은 1978 년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연평균 9%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직접투자를 끌어들이는 견인요인(pull factor)이다.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도전받고 있었다. 우투과이라운드 협상결과로 전 세계의 기업들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의 블록화와 통상마찰도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1988 년부터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원가상승 압박과 제조업부문의 인력부족, 고금리, 고물류비용,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 빈번한 노사분규 등의 국내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축인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해외투자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고 저렴한 임금과 넓은 시장을 갖는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한국에서 대중국 직접투자로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이다.

한국 기업의 대중국직접투자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뒤늦은 1980 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1992 년 8 월 한 중 수교를 시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03 년 12 월말 현재 대중국 투자건수 누계는 순투자기준으로 8,654 건이고 금액으로 약 76.2 억에 달하고 있다. 이는 중국투자가 한국 해외직접투자 총건수인 19,071 건의 약 45.4%로 1 위, 전체 순투자금액(약 436.7 억달러)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2 위를 차지하는 주된 투자대상국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순투자는 6,298 건으로 전체 중국투자건수의 72.8%를

¹ 권영철(1997)

차지하고 있고, 순투자금액은 약 30 억달러로 전체 중국투자금액의 39.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철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 년부터 2000 년까지 신고된 금액이 2 억 8,000 만달러로 전체 청산금액 누계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1 년 한해 만 발생한 청산 및 철수한 금액이 1 억 1,300 만 달러로 3 년간 총 청산 및 철수금액의 누계는 약 3 억 7,000 만달러로 향후 철수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즉 한국은 대중국 직접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실패로 인해 청산 및 철수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²

이 논문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왜 한국기업이 중국에 대해서 직접투자를 많이 하면서도 미국과 일본기업들과는 달리 청산 및 철수되는 기업들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대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여기서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주요특징(stylized facts)를 정리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국 직접투자와 청산기업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방법

먼저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된 직접투자이론을 통해서 앞서 정리된 주요 특징들이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앞서 정리된 주요특징과 기존 직접투자이론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한국중소기업들이 직접투자도 많이 하면서 또한 실패도 많이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한다. 이것을 통해 한국중소기업은 과대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연구구성

본 논문의 제 1 장은 서론으로 논문의 연구목적과 방법 및 구성을 소개한다.

제 2 장에서는 기존문헌을 정리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본다.

² 김홍석 이영주(2003)

제 3 장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해서 한국기업의 대중국의 직접투자현황을 업종별, 지역별, 투자규모별, 소유지분별 등으로 살펴보고 특징들을 정리한다.

제 4 장에서는 앞에서 정리된 한국중소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주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한다.

제 5 장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청산 및 철수기업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앞서 제시된 모형의 경제적 함의에 대해서 입증한다.

제 6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제 2 장 기존문헌연구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를 보면 크게 3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한국기업들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대중국 직접투자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투자동기 및 요인분석에 관한 것이다. 둘째, 중국시장의 진입장벽을 극복하는 투자전략에 관한 것이다. 셋째는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문제점과 투자실패와 그 요인분석에 관한 것이다.

이근(1999)은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은 성과에 대체로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상당히 심각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지적하였다.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은 현지 상황과 관련정책의 불가측성과 가변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전조사 및 정보부족이나 과다한 사전기대와의 관련되기도 하지만 너무 급속한 임금상승과 같은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저임금이 대중국투자의 최우선 고려요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곁들여서 각종 준조세나 임의적 공과금 등 기본적인 문제도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노무관리와 관련하여 급속한 임금상승과 더불어 노동쟁의나 노사갈등, 높은 이직율, 조선족 대우 및 관리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이었다.

송재훈(1999)은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단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실태분석을 통한 경영상의 애로점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대중국 투자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시장의 진입단계부터 진입후의 경영관리 등 전 과정을 국제경영학적 측면에 근거해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과정을 거쳐 중국시장에서 타국기업에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쟁우위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기업은 대중국 투자결정 이후 투자입지의 선택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는지, 또한 해당지역에서 경쟁력강화를 위해 향후 투자패턴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가를 연구하였다.

1993-1997 년간 대중국 직접투자의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건수나 투자금액으로 볼 때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문화적 환경요인 (조선족의 비중)->정책요인(정책적 우대조치)->시장요인의 순으로 동태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대 중국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문화적 환경요인이나 원가요인을 고려한 단기성과 지향적인 투자패턴에서 벗어나

중국시장을 세분화해 한국기업이 경쟁우위를 갖을 수 있는 지역에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한 한국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현지화를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윤태(1999)는 중국 복건성의 대만기업과 중국 산둥성의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 현지적응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중국진출방식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중국 복건성 하문시와 산둥성의 청도시를 현지조사한 자료를 근거하여 한국기업은 대만기업에 비해 현지화수준 및 현지 산업과의 연계정도가 미흡하고 현지정부와 공식적이지만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현지사회와도 소극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사회의 사회력 형성에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한중 경제교류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2000)은 제조업종의 한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별 대중국 직접투자의 동기, 현지자회사 경영성과 및 현지자회사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들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한국중소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동기는 현지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88.7%)가 가장 높았다. 소유별 진입형태와 관련하여 단독투자의 경우 현지자회사의 경영전반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78.8%)이, 합작투자의 경우 현지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84.4%)이 가장 많았다. 대중국 직접투자 추진과정상의 문제점분석에서 투자대상국에 관한 필요한 정보부족으로써 전체응답의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장입지의 선정, 투자규모 및 투자형태 등 실제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보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이 자금조달상의 어려움(50.5%), 세번째는 국제경영관련 인력의 부족(38.1)으로 나타났다.³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전략방향을 크게 6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1) 중국과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투자환경분석 및 점진적 투자전략 (2) 국제경영인력의 확보 및 육성책, (3)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전략, (4) 인적자원, 원부자재조달 및 자금조달 등의 현지화전략 추진 (5) 모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현지 자회사의 경쟁우위 유지 (6) 소유권별 시장진입전략의 적절한 선택에 관한 것이다.

유원혁(2001)은 중국투자시 문제점으로 중국투자기업의 해외투자 경험 및 산업별 제공자료가 부족하고 인사 노무관리 현지금융조달 현지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철폐 외국인 투자정책의 잦은 변경 투자업무의 투명성 결여 등 사업여건의 수시변화 등 중국투자 후 경영상의 애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중수출구조에서 있어서는 유사업종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인한 우리기업간의 과당경쟁 우려, 독자기업 선호에 따른 토지임차 등

³ 여기서 %는 복수응답을 허용했기 때문에 전체 합이 100%를 넘는다.

경비부담 과다와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제 3 국 수출지향형 투자에 따른 내수시장 진출능력 미흡등의 문제점을 추가하고 있다. 실제문제점으로는 임금구조 및 노무관리 등 중국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 중국의 잦은 정책변화와 법규정의 자의적 해석, 합작파트너와의 분쟁, 원부자재 조달난, 임금외 보조금 등 부대비용과다,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취약에 기인한 생산성저하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단기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격의 투자보다는 중국의 경제여건 및 정책변화에 맞추어 장기적 시각에서 투자전력을 세워야 할 것이다. 중국시장진출에 핵심요소가 되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연불수출기금, 해외투자자금의 확대 및 국제금융기구와 국제금융시장 자금의 효과적 활용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의 지역별 특성, 지역별 시장분할, 지방정부의 경제적 자주권 등을 고려한 지역별 경제협력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단순 가공업에서 벗어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경태(2002)는 중국경제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기업들은 현재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문제점을 살펴보면 중국 자체조달비율의 증가와 중국시장점유율의 하락, 투자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 및 중국내 내수시장 진출미흡, 한국기업간의 협력 전문인력부족 등인데 이것이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 큰 폭의 기업청산 및 철수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투자 후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현지화전략의 추진, 현지국에서의 인맥관계의 형성 및 유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투자지역을 동북 3 성과 산둥성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것을 투자지역 및 품목별로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 저가품시장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품질을 중시하는 시장개척 및 장기적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송재훈(2003)은 상표, 핵심역량 등의 무형자산과 관련된 한국기업의 기업가치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7 월 한달 동안 중국의 소비중심지인 북경, 상해, 남경 등 지역에서 일반소비자, 기업인, 정부관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기업가치'의 측정지표인 브랜드자산(brand equity)이나 핵심역량(core competence)등과 같은 비가격 경쟁요인이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의 경우 외국기업에 비해 아직도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중국시장 연구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통해 그 연구가 이루어진 데 비해 이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 및

기업인 등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한국기업의 브랜드자산 핵심역량 보유가치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특징이 있다.

김길성(2003)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적합도가 해외직접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먼저 전략적 적합도란 기업이 선택한 투자전략이 기업내부의 자원과 외부환경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전략의 유형을 글로벌저원가전략, 글로벌차별화전략, 글로벌세분화전략, 보호된 시장추구전략 그리고 현지국시장 순응전략 등 다섯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 전략이 투자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전략적 적합도는 투자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적절한 해외직접투자전략의 선택은 투자수행 및 성과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송재훈(2003)은 Dunning 의 절충이론에 근거하여 해외직접투자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세가지 즉, 기업특유우위요인, 내부화요인과 입지우위요인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에 직접투자를 시행한 기업의 대부분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요인이 내부화 우위요인보다는 기업특유우위요인(특히 가격경쟁우위)과 입지특유요인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투자 한국기업의 기업특유우위요인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모기업의 능력(경영관리, 연구개발, 마케팅)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입지우위요인으로는 '노동, 원자재, 부품 등 투입요소의 가격 및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앞으로 대중국 진출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기적 성과지향 투자형태에서 탈피해 경제적 동반관계로서 장기 지향적 투자형태로의 다음과 같은 3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더불어 중국형 기업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차별화된 마케팅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기술표준화 전략의 수립을 통한 시장교섭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김홍석 이영주(2003)는 중국에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하고 대중국 직접투자의 문제점 세가지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한국 중국투자기업의 수익률이 낮다는 점이다. 둘째, 비용추구형 투자성향이 강하여 현지시장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철수 및 청산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기업이 해외시장에 현지적응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되는 거래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투자하는 결과로 보고 이러한 거래비용을 현지적응비용으로 규정하고 중국현지 한국기업에 설문조사방식으로 현지적응비용의 존재여부 그리고 현지적응비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지적응비용의 발생원인은 현지환경에 대한 비친숙성,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현지경영하는데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대중국투자 중소기업인들은 실질적으로 현지적응비용을 체감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지적응비용을 최소한 방안으로 현지투자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중소기업 공동의 공격적 대응전략 활성화, 유능한 현지인력양성, 적극적인 판시전략활용, 철저한 사전준비, 정부간 협의체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연구를 통해서 볼 때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현지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전준비없이 단지 지리적 근접성과 임금의 저렴성을 활용하는 비용추구형 해외직접투자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현지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적응력에 문제가 있어 청산 및 철수하는 기업이 많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제 3 장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제 1 절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한스물산(1985)이 홍콩을 우회하는 투자형태로 광둥성에 봉제 완구공장의 설립을 시초로 1988년까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홍콩과 일본기업의 현지법인에 의한 우회투자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진웅(1988)이 중국 하문지역에 300만달러를 직접투자한 것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직접투자가 시작되었다. 이는 1978년 중국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응하여 다른 국가들이 1980년 대 초반부터 대중국투자를 시작한 것에 비해 약 10년 정도 늦게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실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특징들을 정리한다.

1 연도별 추이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89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대중국 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급증세를 보였다.

대중국투자의 1단계에 해당되는 1990년대 초반까지 기업규모별 대중국투자현황을 보면 한중 양국의 국교수립 직후인 1993년까지는 중소기업의 대중국투자가 건수나 금액면에서 한국 전체의 대중국투자를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한중수교이후 그동안 관망태도를 보이던 대기업의 대중국투자가 본격화된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투자금액에서 중소기업을 앞질러 대중국투자는 대기업의 주도로 바뀌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조정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중소기업 대중국투자의 조정폭이 한층 커서 1996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중

소기업의 대중투자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그때까지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1995년의 33억9천만 달러의 1/4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조정기를 거친 중소기업의 대중투자는 2000년부터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표 2-1> 한국의 대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전체		중국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9	270	573	7	6	3	1	4	5
1990	340	959	24	16	16	9	8	8
1991	446	1116	69	42	59	27	9	15
1992	497	1219	170	141	156	86	14	55
1993	688	1263	381	264	335	189	36	72
1994	1488	2303	841	633	705	283	92	344
1995	1328	3136	751	841	603	339	91	493
1996	1465	4409	733	901	488	309	73	568
1997	1322	3594	630	725	448	156	50	550
1998	614	4726	263	678	175	82	20	588
1999	1088	3279	457	349	283	84	11	248
2000	2058	4856	766	613	555	175	14	414
2001	2116	5036	1028	576	737	286	16	256
2002	2406	3046	1331	891	912	443	29	386
2003	2043	2803	1202	940	822	543	31	338
전체	19071	43671	8654	7616	6298	3012	498	433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1) 2003년 1-11월 동안의 수치임.

이러한 중소기업의 대중투자 증가세는 대기업의 대중투자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대기업의 대중투자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55억 달러로 1996년에 비해 3.2% 감소, 1998년에는 오히려 58억 8천만 달러로 7.0% 증가, 다시 1999년에는 21억 4천만 달러로 급감, 2000년에는 41억 4천만 달러로 다시 증가

하는 등 1년 증가후 1년 감소하는 불안정한 형태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대중투자자는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도 대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중소기업의 대중투자가 대기업의 대중투자를 앞지르고 그 격차가 점차 커지는 등 1990년대 초반 대중투자 초기단계에 이어 다시 중소기업의 대중투자가 한국 전체 대중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표2-2> 중소기업 대중투자의 위상

단위: %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중소기업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대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투자		순투자		총투자		순투자		총투자		순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9	1.1	0.2	1.2	0.2	2.1	1.2	2.2	1.3	42.9	15.1	42.9	15.1
1990	4.7	0.9	5.1	1.0	8.3	5.0	8.6	5.1	66.7	52.7	66.7	53.4
1991	13.2	2.4	14.1	2.7	21.4	14.4	22.1	14.7	85.5	64.3	85.5	64.3
1992	31.4	7.0	34.3	7.8	42.4	34.3	44.3	36.7	91.8	60.8	91.8	60.7
1993	48.7	15.0	54.0	18.6	62.5	58.5	65.8	63.3	87.9	71.8	87.9	72.4
1994	47.4	12.3	49.8	13.6	61.6	52.6	63.0	58.4	83.8	44.7	84.1	44.4
1995	45.4	10.8	48.5	11.7	63.5	52.4	66.1	58.1	80.3	40.2	80.1	40.1
1996	33.3	7.0	34.5	8.0	56.4	39.9	58.3	41.0	66.6	34.3	66.1	34.8
1997	33.9	4.3	35.2	4.5	57.3	30.3	59.2	31.6	71.1	21.5	70.4	21.7
1998	28.5	1.7	31.1	2.1	50.4	29.5	52.2	39.4	66.5	12.1	66.4	12.6
1999	26.0	2.6	27.5	3.5	47.2	17.3	48.5	21.9	61.9	24.1	62.2	36.2
2000	27.0	3.6	28.0	4.9	42.5	7.6	42.9	7.6	72.5	28.6	73.2	51.5
2001	34.8	5.7	36.3	15.3	55.3	34.1	56.8	108.4	71.7	49.7	72.4	127.5
2002	37.9	14.5	39.5	20.4	60.4	42.1	61.7	45.6	68.5	49.7	68.8	55.1
2003	40.2	19.4	41.5	21.9	67.8	58.6	69.3	59.1	68.4	57.8	68.7	60.3
합계	33.0	6.9	35.1	8.8	53.1	31.3	55.1	35.4	72.8	39.5	73.0	48.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1) 2003년 1-11월 동안의 수치임.

대중투자의 증대에 따라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 대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투자액 기준으로 2002년에는 29.2%수준에 이르렀고 2003년에는 33.5%로 증가하였다. 이중 2002

년 중소기업의 대중투자가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투자건수 기준으로는 37.9%, 총투자액 기준으로는 14.5%를 차지하는 등 최근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전체 중소기업 투자건수와 투자액의 각각 60.4%와 42.1%로 옮겨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전체 대중투자 건수의 68.5% 그리고 대중투자액의 57.8%를 차지하여 중소기업 대중투자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 중국의 각 국별 외국인 투자비중

단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홍콩	68.2	62.8	58.4	53.5	49.6	45.6	40.7	40.6	38.1	35.7	33.9
미국	4.6	7.4	7.3	8.2	8.3	7.2	8.6	10.5	10.8	9.5	10.3
일본	6.4	4.9	6.1	8.3	8.8	9.6	7.5	7.4	7.2	9.3	7.9
대만	9.5	11.3	10.0	8.4	8.3	7.3	6.4	6.4	5.6	6.4	7.5
한국	1.1	1.4	2.1	2.8	3.3	4.7	4.0	3.2	3.7	4.6	5.2
싱가포르	1.1	0.2	3.5	4.9	5.4	5.8	7.5	6.6	5.3	4.6	4.4
독일	0.8	0.2	0.8	1.0	1.2	2.2	1.6	3.4	2.6	2.6	1.8
영국	0.3	0.8	20.3	2.4	3.1	4.1	2.6	2.6	2.9	2.2	1.7
프랑스	0.4	0.5	0.6	0.8	1.0	1.0	1.6	2.2	2.1	1.1	1.1
캐나다	0.5	0.5	0.6	0.7	0.8	0.8	0.7	0.8	0.7	0.9	1.1
마카오	1.8	2.1	1.5	1.2	1.4	0.9	0.9	0.8	0.9	0.7	0.9
이탈리아	0.2	0.4	0.6	0.7	0.4	0.5	0.6	0.5	0.5	0.5	0.3
기타	4.9	7.5	6.4	7.1	8.5	10.5	17.4	15.2	19.8	22.0	23.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각년호

한편, 대중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국가의 대중투자와 비

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1992-2002년 동안 국가별 대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연평균 36.7%의 증가율을 보여 37%를 기록한 영국에 이어 두번째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대중투자가 중국 전체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실행액 기준으로 2002년에는 5.2%에 이르러 홍콩, 미국, 일본, 대만에 이어 중국의 5위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2 지역별 분포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2년 12월말 현재 산동성을 위시한 발해만 지역이 전체의 51.5%(허가건수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지역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하여 이들 두 지역이 전체 대중국 직접투자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발해만 지역과 동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저렴한 노동력과 더불어 이들 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또한 언어 소통이 원활한 조선족 활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⁴ 이와 같은 한국기업의 저임금을 이용한 생산효율지향형 투자는 이들 지방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잘 부합되었으나, 이에 따른 동종업종간의 Bandwagon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지역의 건 당 평균투자규모의 경우 북경, 천진을 제외하면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체 평균(885달러)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투자가 특정지역에 편중된 현상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시작된 이래 지속되어 온 것으로, 비록 1996년 이후 생산효율지향형에서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내륙지역으로 전환하려는 투자전략이 강조되고 있어 다소 다변화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이들 지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92년 중국정부가 전방위 경제개발개념을 도입하면서 홍콩, 대만, 일본 등 여타 아시아권 국가들의 대중국 투자가 화남, 화중 등 특정지역 집중에서 벗어나, 내륙 지역 등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과 좋은 대조를 보여 주고 있다.

⁴ 송재훈(2003)참조

<표2-4> 대중국 투자지역별 비중(2002년 12월말 기준)

(단위:건,천만불)

지역	성	투자건수	투자금액	건당 투지구모	비중(%)	
					건수	금액
발해만 지역	북경	425	588,066	1,383	51.5	51.8
	천진	683	818,165	1,198		
	하북성	178	85,753	482		
	산동성	2,532	1,856,248	733		
동북3성 지역	길림성	643	191.610	298	29.5	13.5
	흑룡강성	267	173.199	649		
	요녕성	1,253	625.754	499		
화중지역	절강성	197	264.304	1.342	13.2	25.5
	강소성	434	788.492	1.816		
	상해	348	546.821	1.571		
화남지역	광둥성	185	256.023	1.384	3.8	6.5
	복건성	56	51.038	911		
	해남성	13	19.826	1.525		
	광서자치구	27	99.057	3.669		
기타대륙지역 합계	사천성	32	16.798	525	2.0	2.7
	강서성	22	3742	170		
	하남성	21	5304	253		
	호북성	19	22.334	1.175		
	안휘성	15	13.836	922		
	호남성	11	102.247	9.295		
	섬서성	10	6.453	645		
	산서성	9	4.113	457		
	운남성	5	3.228	646		
	감숙성	4	506	127		

	귀주성	2	1.372	686		
	칭해성	1	121	121		
합계		7.392	6.544.410	885	100.0	100.0

자료: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3 업종별 분포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2년 12월말 현재 제조업부문이 금액기준으로 54억 6천 4백만 달러(허가기준)로 전체의 86.7%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섬유, 의복, 신발, 가죽, 기타 제조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에 집중(금액기준 42.2%)되어 있는데, 조립금속 업종도 노동집약적인 생산라인을 갖는 품목이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전체 대중국투자의 50% 이상이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제조업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되어 왔던 원인은 첫 번째로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진출이 대부분 생산효율추구 요인 즉, 중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한 뒤 제 3국 혹은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목적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그 동안 중국정부가 비제조업 부문, 특히 서비스 부문과 같은 3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왔음에도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는 지난 2001년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서비스 부문 투자제한 완화에 따라 부동산 개발, 무역업, 음식, 숙박업 등 3차 산업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도 3차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1991년만 하더라도 허가금액기준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0.2%에 불과하였으나 1993년에는 3%로 높아진 데 이어 다시 1996년에는 9.7%로 높아 졌고, 최근에는 16%대에 이르는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3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3차 산업에 대한 중국 내 수요의 증대 및 중국정부의 WTO가입에 따른 관련분야의 시장개발,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영향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증대, 투자동기의 다양화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2-5> 대중국 투자의 업종별 비중(2002년 12월말 현재)

(허가기준,천미불,%)

업종 구분	건수	비중	금액	비중
농림어업	115	1.6	33.074	0.5
광업	30	0.4	13.899	0.2
제조업	6.413	86.7	5.464.637	83.5
건설업	51	0.7	212.969	3.3
도소매업	255	3.5	142.819	2.2
운수 창고업	49	0.7	66.058	1
통신업	15	0.2	95.527	1.6
금융 보험업	2	0.02	568	-
숙박 음식점업	178	2.4	250.112	3.8
부동산 및 서비스업	283	3.8	263.877	4.0
기타	1	0.01	870	-
합계	7392	100.0	6544.41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4 투자규모별 비중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를 규모별로 보면, 2002년 12월말 현재 전체의 93.1%인 6,879건이 건당 백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투자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수산업, 임업, 음식, 숙박업, 무역업, 기타서비스 등 비제조업종 대부분과, 음식료품, 섬유, 의복, 목재, 가구, 기타제조 등 노동집약적 생산라인이 대부분인 제조업종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2-6> 대 중국투자의 규모별 비중(2002년 12월말 현재)

(단위:허가기준,천미불,%)

규모 건수	100만불 이하	500만불 이하	1000만불 이하	5000만 불 이하	5000만 불 초과	계
건수	6,879	414	56	41	2	7,392
(비중)	(93.1)	(5.6)	(0.75)	(0.54)	(0.01)	(100.0)
금액	1,496,480	1,418,439	777,627	1,920,066	931,798	6,544,410
(비중)	(22.9)	(21.7)	(11.9)	(29.3)	(14.2)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이와 같은 현상은 업종별 평균투자금액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 2002년 12월말 현재 한국기업의 대중국 평균투자금액은 단순평균기준으로 건당 88.5%만 달러로 같은 기간까지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의 건당 평균금액 212만 달러의 41.7%에 불과하다. 특히, 농,축산업,임업,광업, 기타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비제조업종과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가구,종이,인쇄,기타제조 등 일부 노동집약적 제조업종은 평균투자금액이 건당 50만 달러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앞선 <표2-1>에서 볼 수 있듯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투자건수가 1994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동시에 투자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건당 투자규모도 증가추세를 보여 주었다. 특히 천만불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3, 1994년에 각각 2건에서 1999년 7건, 2000년 11건, 2001년의 13건으로 증가해, 1989-2002년 동안 전체 투자건수규모로 보면 비록 0.55%에 불과하지만 금액 면에서는 43.5%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던 중소형 규모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자본집약적인 투자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정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9년 이후부터는 IMF의 영향으로 대외투자가 감소하면서 대중국 투자의 경우도 건 당 평균 투자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5 소유지분별 비중

소유지분별 투자실태를 살펴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2002년 12월말 현재 62.1%가 단독투자형태이며, 23.4%가 동수 및 다수지분을 갖고있어, 전체의 85.5%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업종별 경영권 확보율은 제조업이 71.4%로 비제조업의 55.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내수보다는 수출지향성 업종이 강하고, 노동집약적 생산과정을 갖는 섬유, 의복, 신발, 가죽, 목재, 가구, 기타 제조 등의 업종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경영권확보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행함에 있어서 한국 기업문화의 가부장적 특성과, 특히 중소기업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최고경영자 1인 경영 스타일등의 영향, 그리고 중국의 정치환경과 그에 따른 위험(risk)을 고려해 통제권을 갖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가지 특징적인 측면은, 대중국 직접투자에 있어서 단독투자와 소수지분의 비율은 매년 늘어 단독투자의 경우 지난 “96년의 송재훈(1996,p.253)의 조사(44%)에서 보다는 무려 18%가 증가했고, 동수(50:50)지분과 다수지분의 비율은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대중국 투자진출 초창기인 1989년에는 동수 및 다수지분의 비중이 57.2%이었으나, 1997년 38.4% 그리고 2002년에는 23.4%로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양극화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아직 자본주의 경제제도 및 상관습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중국에서 완전한 통제력을 가질 수 없는 동수 및 다수 지분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합작파트너와의 의사결정 시간이 지연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을 낳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의 반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의 중요한 동기중의 하나가 현지시장 개척에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현지시장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끊임없는 축적

이 불가결하다면, 이 같은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소유지분의 양국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 현지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국 현지시장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는 현지 합작선과의 잦은 접촉을 통한 간접경험 축적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특징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기업은 대중국투자 11년은 질적 발전보다는 양적 성장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투자 규모면에서는 선진국의 평균치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고, 투자지역은 여전히 발해만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내수시장확보에 아직도 취약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투자업종의 다양성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만큼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 확대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 진다.

<표2-7> 대중국 투자의 투자지분별 비중(2002년 12월말 현재)

(허가기준,천만불,%)

투자 지분 건수	10% 미만	10-50% 미만	50%	50-100% 미만	100%	계
건수 (비중)	22 (0.29)	1,051 (14.2)	531 (7.2)	1,199 (16.2)	4,589 (62.1)	7,392 (100.0)
금액 (비중)	8,282 (0.12)	522,652 (7.98)	510,652 (7.8)	2,053,171 (31.4)	3,449,672	6,544,41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6. 청산 및 철수기업 현황

최근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청산 및 철수가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 년 최초로 대중국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2001 년 6 월말까지 신고된 대중 투자 청산 및 철수금액의 누계는 약 3 억 7,000 만 달러이나 1999 년부터 2000 년까지 최근 2 년 반 동안 신고된 금액이 2 억 8,000 만 달러로 전체 청산금액 누계의 75%를 차지하였다. 이 기간 중

대 중국 투자 청산금액은 전체 해외투자 청산금액의 1/3 에 달하였다. 한국이 IMF 관리체제로 들어선 1998 년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청산금액은 1,100 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9 년에는 1 억 400 만 달러로 전년 대비 거의 10 배나 급증하였는데 2000 년에는 6,100 만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가 2001 년에는 1 억 1,130 만 달러를 기록하는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 대중투자 청산의 경우 199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전체 대중투자 대비 비중은 1992-2003년 11월 현재 건수기준으로 1.9%, 금액기준으로는 2.6%이며, 전체 대중투자 청산건수의 62.4%, 청산금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청산건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투자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8> 중국투자 중소기업의 청산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체	잔액	5,442	7,472	10,233	13,828	16,821	20,262	22,337	25,819	26,261
	청산	245	270	311	653	237	453	476	196	184
대중국	잔액	467	1,089	1,899	2,699	3,312	3,931	4,135	4,381	4,458
	청산	2	10	14	36	20	11	105	61	113
비중(%)	잔액	8.6	14.6	18.6	19.5	19.7	19.4	18.5	17.0	17.0
	청산	0.8	3.7	4.5	5.5	8.4	2.4	22.1	31.1	61.4

자료: 한국수출은행, www.koreaexim.go.kr

제2절 소결

대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보다 중소기업의 투자의 비중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중국 직접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2003년 현재 한국은 중국의 제5위 투자국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증가율에서 영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지역별 투자현황을 보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추구형 투자가 주류를 이루어 지리적으로 근접한 산동성과 동북3성 지역에 대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강한 지역에 대한

투자증가속도가 중국전체 투자국의 평균이하로 더디다.

업종별 투자현황을 보면 저임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 규모는 투자건당 평균 100만달러 이하로 소규모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투자소유형태는 2/3이상이 합작방식보다는 단독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00이후 청산기업들의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중국 직접투자에서 한국은 소규모 단독투자형태의 직접투자가 저임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성과 동북3성지역에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분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기업의 투자실패에 따른 청산기업수가 급증하고 있다.

제 4 장 한국중소기업 대중국 직접투자 모형

기존연구와 통계자료를 이용한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투자규모가 100 만불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중국 직접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 (2) 임금의 저렴성을 이용한 비용추구형 투자를 행하고 있다.
- (3) 노동집약적 제조업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 (4)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형태가 대부분이다.
- (5) 지역적으로 근접한 산동성과 동북 3 성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6) 대중국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청산 침 철수기업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 중에서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제기는 왜 한국기업들은 중국에 직접투자를 증가시키면서 또한 한편에는 투자년수가 길어지면서도 청산 및 철수기업이 감소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제기에 해결하기 위한 모형에 필요한 기본가정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1) 중국시장에 중소기업이 단독투자형태의 직접투자를 한다. 즉 대기업과 합작형태의 투자는 배제한다.
- (2) 대 중국투자 한국중소기업은 대체가능성이 높은 노동집약적 제조품을 생산한다. 즉 중국시장은 제품차별화를 인정하는 독점적 경쟁시장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3) 투자기업들은 투자결정시 기대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지만 생산시에는 실제이윤을 극대화한다.
- (4) 총비용은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생산비용은 임금, 원료와 자본재 등 생산요소구입비용이다. 거래비용은 유통판매비용을 포함한 기타비용이다.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은 유통판매비용처럼 생산량관련부문과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 비즈니스 환경 및 관행의 차이, 그리고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해외 현지 환경에 대한 비친숙성,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 차별적 태도로 생산량과는 무관한 현지경영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지적응비용도 포함된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5) 한국 중소기업은 투자결정시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⁵ 한국 중소기업들이 투자결정시 기대수익과 기대생산비용만을 고려하여 기대이윤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기대수익과 기대생산비용에 대해서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거래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생산할 때는 거래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투자할 때 거래비용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로 첫째 대중국 직접투자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위험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가 부족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거대 시장을 노리고 진출했으나 중국의 빠른 임금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과 같은 현지의 변화에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신규투자의 경우에도 급속한 중국의 기술수준 변화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정보구축에 대한 준비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넷째 중국의 문화적 제도적 차이에 대한 연구없이 투자를 시행한다.

(6) 한국중소기업의 비용조건은 동일한다. 좀더 자세히 규정하면 한계생산비용과 한계거래비용은 투자기업들 모두 동일하고 한계생산비용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한계거래비용은 일정하다. 이 가정은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기업이 미래 생산을 위한 투자를 결정할 때는 기대이윤($E(\pi)$)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투자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즉 예상수익($E(R)$)에서 예상비용($E(C)$)의 차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식(1)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

⁵ 이러한 가정의 근거로는 많은 연구들이 중국 직접투자시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투자가 대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동렬(1995)는 숙련공의 임금이 한국 숙련공의 10.4%, 비숙련공의 임금은 9.4%임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김기현(2000)은 중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동기를 현지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현지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88.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송재훈(2003)은 5 점척도분석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의 낮은 생산비용'이 설문대상기업의 평균 4.64 점으로 1 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새로운 현지시장의 개척'의 3.97 과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홍석 이영주(2003) 산업연구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동기가 저임금노동력 확보임을 밝히고 있다.

김기현(2000)은 대중국 직접투자시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파견인력의 부족과 적응문제, 현지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노무관리의 어려움, 전반적인 경영능력의 부족 등 내부적인 요인과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현지금융의 어려움, 현지의 원부자재 구입의 어려움으로 적기조달의 차질, 납품수량의 부족 등 내부요인을 들고 있다. 전경태(2002)는 한국기업은 타국가의 기업보다 노사갈등이 심하고 노사분규가 잦다. 한국기업 관리자의 친절, 겸손 정도가 낮고 교육 문화산업, 통역 및 직원훈련원과 병원의 건립, 출연금 기부 등 현지화 노력을 등한시하고 단기적인 이윤추구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한국기업이 투자결정시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생산 후 이런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E(\pi) = E(R(Q)) - E(C(Q))$$

가정(4)에 의하면 식(1)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2) E(\pi) = E(R(Q)) - \{E(C_P) + E(C_T)\}$$

투자를 결정할 때는 가정(5)에 의해서 수익과 생산비용에 대해서는 완전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래비용에 대해서는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E(C_T) = 0$ 된다. 이제 투자 후 현지생산 할 때 기업들이 거래비용에 대해 완전정보를 갖기 때문에 식(2)는 다음 식 식(3)과 식(4)로 나타낼 수 있다. 식(3)은 기업이 투자시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이윤방정식이고 식(4)는 투자후 현지생산할 때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이윤방정식이다.

$$(3) \pi = R(Q) - C_P(Q)$$

$$(4) \pi = R(Q) - \{C_P(Q) + C_T(Q)\}^6$$

이제 한국기업이 투자결정시에는 기대이윤을 극대화하고 현지생산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각각 계획생산량과 현지에서 생산되는 실제생산량이 결정될 것이다.

다음 식(5)는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에 대한 기대이윤을 최대화시켜주는 적정투자 규모를 나타내고 식(3)에서 유도된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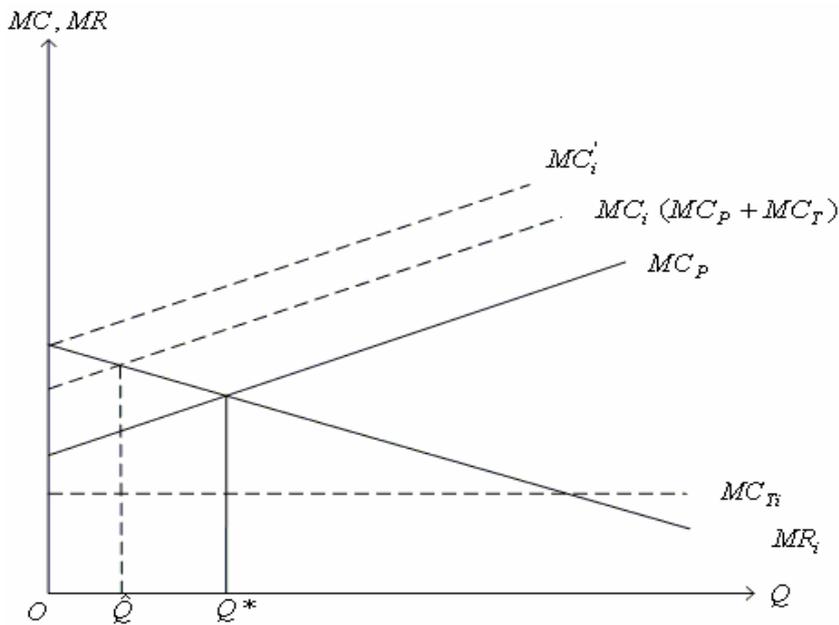
$$(5) MR(Q) = MC_P(Q)$$

다음 식(6)은 한국기업이 투자후 이윤극대화를 실현해주는 실제 생산량규모를 나타내고 식(4)에서 유도된 식이다.

$$(6) MR(Q) = MC(Q) = MC_P(Q) = MC_T$$

<그림 4-1>을 개별기업 i 의 투자규모와 현지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에서 보듯이 한계수익곡선은 독점적 경쟁시장을 반영하여 우하향하고 한계생산비용곡선은 일반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한계비용곡선은 한계생산비용곡선과 한계거래비용곡선의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생산비용곡선을 한계거래비용만큼 위쪽으로 평행이동하면 구할 수 있다.

⁶ 기대치가 실제치로 바뀐 것은 완전정보를 가정하여 기대치가 그대로 현실로 실현된다는 것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림 4-1> 목표생산량과 실제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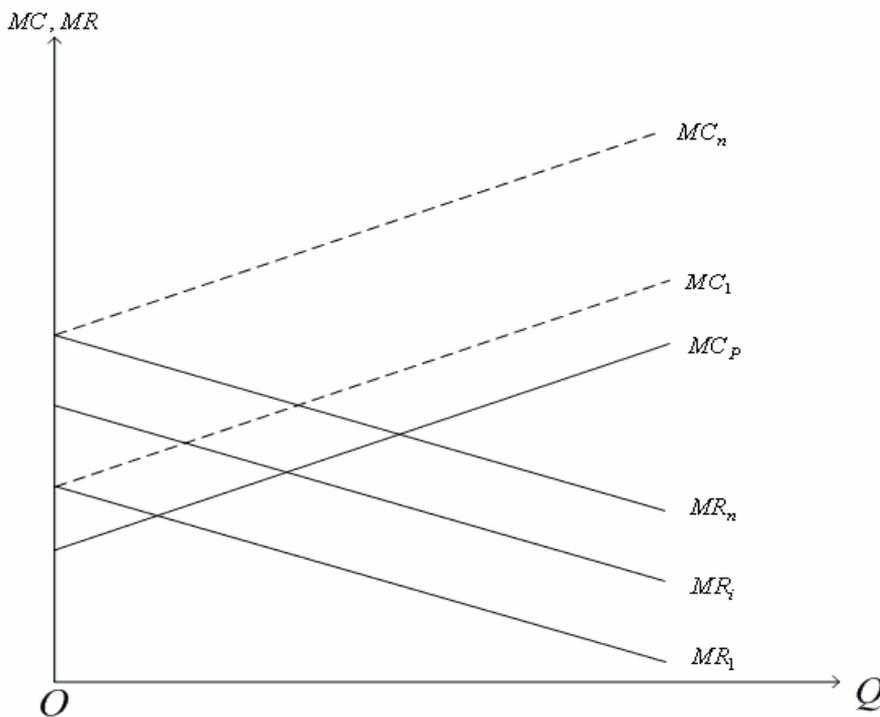
식(5)에 의해 투자기업이 기대이윤극대화를 위해서 한계수익과 한계생산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기업 i 는 투자규모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규모는 Q_i^* 가 된다. 이것이 목표생산량(planned production)이다. 그러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생산에 들어갈 때에는 예상치 못했던 한계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6)에 의해 이윤극대화를 위해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Q_i^\#$ 에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Q_i^* > Q_i^\#$ 이 성립된다. 목표생산량이 항상 실제생산량보다 크다는 것은 한국기업들이 적정생산규모보다 과다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초과설비(excess capacity)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실제생산량이 0 될 때 청산된다고 규정된다. <그림 4-1>에서 보듯이 만약 한계거래비용이 충분히 커서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생산량이 0 이 되면 이 기업은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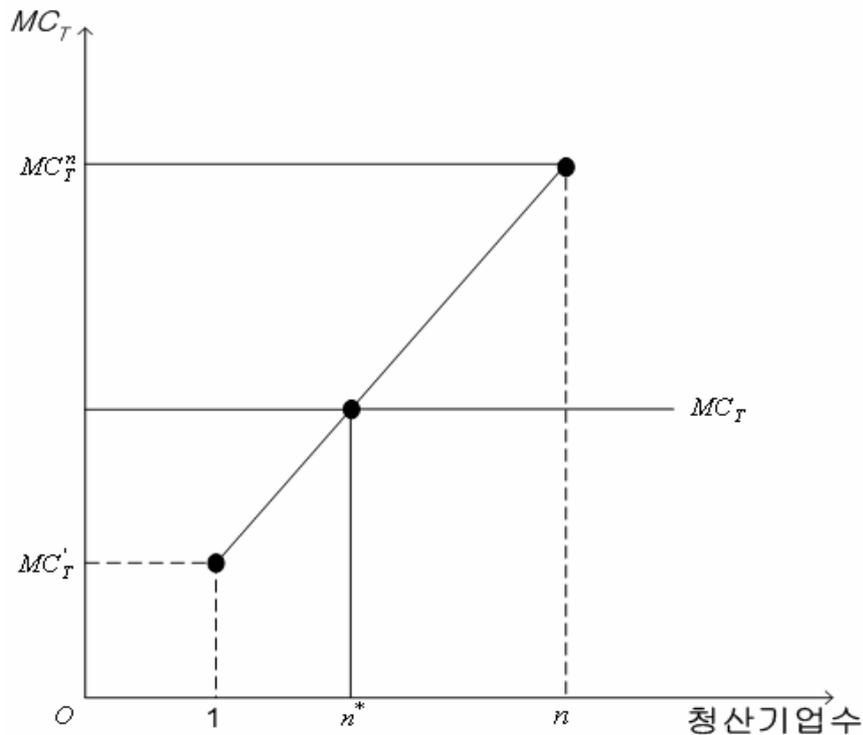
이 모형을 전체 투자기업으로 확대한 것이 <그림 4-2>이다.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먼저 투자기업수가 n 개이고 앞에서 가정했듯이 각 개별기업은 한계수익이 다르고 한계생산비용과 한계거래비용은 같다. 각 기업마다 한계수익의 차를 반영하기 위해 한계수익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순으로 배열하여 나타낸 것이다.

한계수익을 다르다고 가정하는 것은 각 개별기업이 나름대로 기업특유의 경쟁우위요인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해외로 이전하여 독점적 렌트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때 한계거래비용이 MC_T^1 라고 한다면 한계생산비용과 합해져 한계비용이 MC_1 곡선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의 실질생산량이 0 이 되기 때문에 청산될 것이다. 다음 한계거래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이윤극대화조건에 의해 그 다음으로 한계수익이 적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청산되어 청산기업들의 수가 증가될 것이다. 결국 한계거래비용이 MC_T^N 수준이 되면 한계비용이 MC_N 가 되어 마지막 n 번째 기업도 청산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직접투자를 완전철수 하게 된다. 즉 한계생산비용이 일정할 때 한계거래비용이 커지면 청산기업 수는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한계거래비용과 청산기업수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것을 $MC_T \cdot N$ 곡선이라 하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3>이다. 이때 중국시장에서 실제 한계거래비용이라면 이 한계거래비용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청산기업수가 결정된다. <그림 4-3>에서 청산기업이 n 개이다. 즉 n 개의 기업이 청산되고 n-n 개의 기업은 적어도 양의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4-2>한계거래비용과 청산기업수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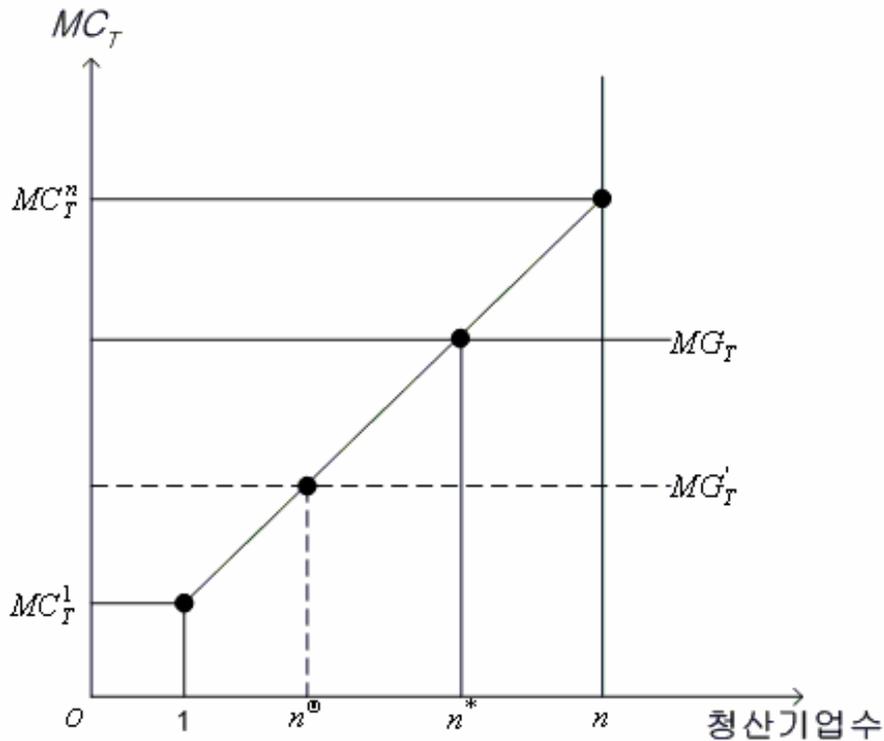
<그림 4-3>청산기업수의 결정

일반적으로 투자기업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투자국의 시장에 익숙해지고 유통판매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현지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차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한계거래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한계거래비용이 하락하면 <그림 4-3>에서 한계거래비용곡선이 아래로 이동할 것이다. <그림 4-4>에서 보듯이 한계거래비용과 곡선과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 청산기업수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기업은 전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결정 할 때 총비용을 생산비용만 계상하지만 현지 생산할 때 거래비용을 인식하고 그 비용을 감안하여 이윤극대 생산량을 결정한다. 한계거래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새로운 진입한 기업들 중에서 전에는 청산되어야 할 기업들이 청산되지 않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기업수는 감소한 것이고 현지 기존기업들은 한계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전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한계거래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위의 반대 논리로 한계거래비용곡선이 위로 이동하게 되어 청산기업수는 증가할 것이다.



<그림4-4>한계거래비용이 하락할 경우 청산기업수의 변화

지금까지 투자기업이 한계거래비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기대 한계거래비용이 0 라는 가정하에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투자기업이 한계거래비용에 대한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기대한계거래비용이 0 이 아니라면 투자 기업이 한계거래비용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림 4-1>에서 한계비용과 한계생산비용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좁혀진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한계비용과 한계생산비용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어 목표생산량과 실제생산량이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또한 투자기업 전체적으로 볼 때 한계비용이 한계수익보다 큰 기업은 처음부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후 청산 및 철수 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시 거래비용에 대한 정보와 현지생산할 때 거래비용을 인식과의 차이에 의해 목표생산량이 실제생산량보다 항상 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산 및 철수기업은 생산할 때 인식된 거래비용이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0 이 될 만큼 클 때 발생한다. 즉 청산 및 철수기업은 투자규모와 생산규모사이의 괴리에 따른 특수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제 5 장 모형의 경제적 함의

<표 5-1>에서 보면 대중 총투자 대비 건수별 비중을 보면 1993 년 0.6 이었는데 점차 증가하다가 1998 년 6.3 으로 최고에 이르고 그 다음 급속히 감소하다가 최근 2001 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금액별로 봐도 1992 년에 0.7 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8 년 4.8 까지 증가하다가 2001 년까지 감소한다. 2001 년 다시 3.7 로 증가하다가 특별히 감소하지 않고 있어 건수별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6-1998 년 동안은 건수별의 비중이 금액별보다 더 높다. 이 기간동안 청산되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형에서는 청산기업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별 자료보다는 건수별 자료가 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철수 건수 및 금액 추이

단위: 천 달러

	중소기업 청산		대중 총투자 대비 비중		전체 청산 대비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2	0	638	0.0	0.7	-	100.0
1993	2	220	0.6	0.1	100.0	9.5
1994	5	5,979	0.7	2.1	55.6	61.1
1995	9	7,408	1.5	2.2	100.0	50.1
1996	19	7,973	3.9	2.6	82.6	22.3
1997	18	4,407	4.0	2.8	94.7	16.7
1998	11	3,923	6.3	4.8	68.8	6.6
1999	11	3,421	3.9	4.1	55.0	2.7
2000	5	4,501	0.9	2.6	33.3	1.6
2001	14	10,569	1.9	3.7	48.3	1.3
2002	15	10,037	1.6	2.3	53.6	9.5
2003	9	18,745	1.1	3.4	47.4	26.7
전체	118	77,821	1.9	2.6	62.4	5.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이와 같은 현상을 앞에서 제시한 모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4 장에서 구축한 모형에 의하면 청산기업은 투자할 때 인지된 거래비용이 현지생산할 때 인지된 거래비용보다 훨씬 적어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0 이 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기업은 중국의 저렴한 임금과 지리적 근접성과 관련된

한계생산비용만 인식하고 한계거래비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규모와 생산 규모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기업의 초과설비로 남게 되고 그것이 과중한 기업은 결국 청산되거나 현지 철수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기업은 왜 이런 행태의 투자를 시행하는가? 한국내 빠른 임금상승과 노사관계의 악화로 인해 경영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에 관련된 정보에 입각하여 투자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결정시 기대한계거래비용과 생산시 실제 한계거래비용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1998년까지 청산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런 행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앞서 투자한 기업에 대한 학습효과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즉흥적인 결정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며 시장 전망과 현지 소비수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없었고,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상관습과 상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중국의 시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99년 2000년 청산비율이 감소한 것은 한국에 IMF 충격이 발생하여 한국내에서 중소기업의 파산이 급증하게 되어 해외직접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 2장의 <표 2-1>을 보면 대중국 투자에서 건수별 1997년 630건에서 1998년 263건으로 거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1999년에는 457건으로 일부 증가하였지만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대중국 중소기업을 보면 1997년 448건에서 1998년 175건으로 1997년에는 283건으로 전체 대중국 투자와 거의 비슷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적어진 투자가 1-2년 시차를 두고 청산기업이 발생한다면 그 수는 적을 수 밖에 없다. 이 모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해외직접투자를 할려고 하는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투자시와 생산시의 정보의 차에 의해 과잉설비와 결국 청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한국의 IMF 구제금융시절에는 해외직접투자 자체에 대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이 모형의 설명력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다시 청산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IMF 구제금융이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한계거래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생산비용만을 고려하고

투자하는 패턴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서 투자해서 실패한 기업들로부터 한계거래비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한계거래비용을 중소기업이 인식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즉 한계거래비용에는 대중국 직접투자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거대 시장을 노리고 진출했으나 중국의 빠른 임금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과 같은 현지의 변화에 대한 인식, 급속한 중국의 기술수준 변화에 대한 정보, 중국의 문화적 제도적 차이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100 만미만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저렴한 임금과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단순한 추론만 가지고 즉흥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이것이 결국 투자실패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계거래비용에 대한 정보에 공공재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연구하고 그 정보를 투자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계거래비용을 정확히 인식하여 투자규모와 생산규모의 차를 최소화하여 각 기업의 과잉투자설비를 줄이고 이에 따라 청산기업의 수도 줄여야 한다.

제 6 장 결론

1989 년 후반부터 시작된 대중국 직접투자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3 년 현재 5 위 의 투자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중국투자에서 한국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규모가 100 만불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중국 직접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둘째, 임금의 저렴성을 이용한 비용추구형 투자를 행하고 있다. 셋째, 노동집약적 제조업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넷째,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형태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지역적으로 근접한 산동성과 동북 3 성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첫째, 한국의 대중국투자기업의 수익률이 낮다는 점이다. 둘째, 비용추구형 투자성향이 강하여 현지시장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철수 및 청산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 왜 한국기업들은 중국에 직접투자를 많이 하면서 동시에 청산 및 철수되는 기업이 많은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한국중소기업들은 투자결정시에는 한계거래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현지 생산할 때에 그 한계거래비용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투자규모와 생산규모에 괴리가 발생하고 그 차만큼 과다투자로 남게 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업은 철수나 청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거래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 만불이하의 투자가 대부분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거래비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투자를 준비하려는 중소기업에게 공공재로서의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부록>

이 모형에서 두가지 외생변수의 변화에 의해 청산기업수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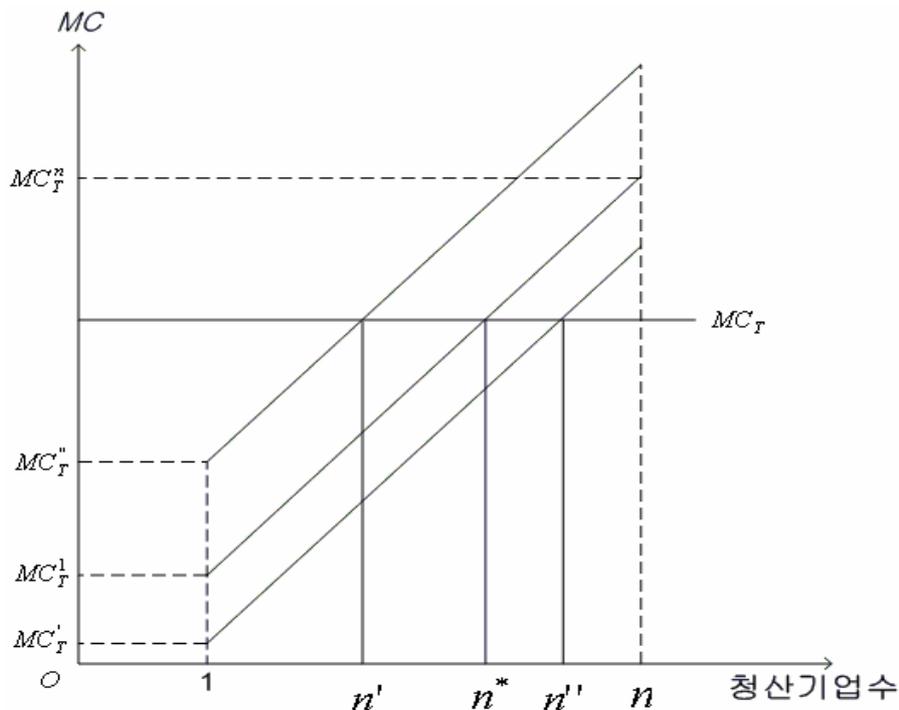
(1) 한계생산비용이 변화하는 경우

기술혁신이 발생했거나 생산요소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한계생산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한계생산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그림 4-2>에서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 유도되는 곡선은 <그림 4-5>에서 보듯이 위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기업들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청산기업수는 감소할 것이다.

만약 한계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반대로 곡선은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는 기존의 기업들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청산기업수는 증가할 것이다.

(2) 예상한계수익이 변화하는 경우

일부기업의 한계수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승한 경우 <그림 4-2>에서 해당기업의 곡선이 위로 이동하고 이것은 <그림 4-5>에서 곡선은 위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기존기업의 이윤증가로 생산량은 증가하고 새로운 기업 중에서 청산기업수는 감소할 것이다.



<그림4-5>한계생산비용, 한계수익이 변화할 경우 청산기업수의 변화

<참고문헌>

◆ 국내자료

- 김기현(2000),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실태 및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사회과
학연구 제 20 輯 제 1 권
- 김길성(2003),대중투자기업의 전략적 적합도와 기업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동
서경제연구,제15집 제1호
- 김동현(2002),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현지 마케팅전략에 대한 연구,목원대학
교 석사논문
- 김운태(1999),중국투자 한국기업의 현지적응 연구, 中國學研究 제 17호
- 김홍석 이명주(2003) 중국투자 중소벤처기업의 현지적응비용과 대응전략,산업연구원
권영철(1997),해외진입장벽과 해외진입방식 선택:조직실패개념의 적용,경영학연구 제
26권 제 1호(pp.1-16)
- 박동열(1995),한국중소기업의 중국진출현황과 문제점 분석,울산대학교 경영학 연구논
문집 제 2권 2호
- 백권호(1992),투자사례로 본 대중국 투자전략,대외 경제 정책연구원
- 석상준(1994),중국산동성에 대한 투자환경분석,산업기술정보원
- 송재훈(1999),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입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한국북방학회
논문,5권1호
- 송재훈(2003),투자결정요인과 기업특성요인이 한국기업의 대 주육 투자전략 수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대한경영학회지 제 40호(pp.1915-1935)
- 안동규(1993),한국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분석과 전략적 대안,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
문,국제경영학원
- 안종석(1993),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실태와 향후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용남(1997),한국기업의 중국산동반도 투자현황 및 부각되는 문제점,산업경영연구 6
권 2호
- 유승훈,이명수(1995),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에 있어 소유권결정에 관한 연구,경영학
연구,제 24권 1호,한국경영학회,pp.129-166
- 유원혁(2001),한국기업의 중국투자현황과 전략에 관한 연구,동북아연구논총 6권 1호,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소
- 이은의(1996),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중 직접투자에 관한 사례연구,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근(1999),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교연구: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에 대한 시사, 경제논집 38권 1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지만수(2003), 한국기업의 대중국권역별 진출과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 관련 인터넷 사이트

산업자원부 <http://www.micie.go.kr>

한국무역협회 <http://kotis.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http://korea-china.korcham.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